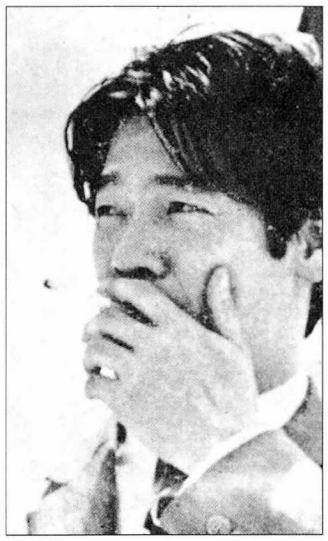
군살 박힌 통념 깬 '재일 한국인문학'

'민족성의 자각'에서 '존재의 근거'로 문제의식 자리 옮겨

윤상인
한양대 교수 · 일문학

재일 한국인문학에 대해 막연히 지녀왔던 통념을 수정할 때가 됐다. '민족'이 있던 자리에 '문학'을 배치하고, 혼혈의 감성과 '타자'의 시선으로 삶의 심연을 이야기하는 유미리가 등장해, 재일 한국인문학에 대한 우리의 군살 박힌 통념의 허구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회성씨.

이양지씨.

유미리씨.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후 수상작을 능가하는 작품을 써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유미리가 신작 《타일》(김난주 옮김, 민음사)을 발표했다. 유미리는 사이코 호러 소설의 형식을 빌린 이 소설에서 그간 정주해 왔던 '붕괴된 가족'의 미니멀리즘적 세계에서 벗어나 보다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독자를 안내하고 있다.

유미리 문학의 변모

성 불능을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원룸 아파트에 기거하는 '남자'(명목상의 직업은 책 장정을 전문으로 하는 북 디자이너)는 자신이 세들어 있는 원룸 아파트 전체에 타일로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모자이크화 〈이수스의 전투〉를 재현하는 일에 몰두한다. 여기에 우연히 만난 디자인 전문학교생 사이코가 타일 작업을 거들게 되고, 자신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관음증 노인 에모토와 별다른 이유 없이 '남자'가 애독하는 포르노 소설의 작가 나츠미 가오리를 유인, 감금하는 계획을 공모하기에 이른다. 이윽고 나츠미를 자신의 원룸에 감금한 '남자'는 연재 소설의 결말을 완성하라고 강요한 뒤 타일 커터로 목을 베어 살해하여, 시체를 시멘트로 둘러싸고 겉에 타일을 붙여 벽 속에 묻는다.

《가족 시네마》를 쓴 후 작가 자신이 스스로 문학의 주제라고 밝힌 '인간관계의 혼돈' — 달리 말해 금이 간 인간관계의 질곡 상황은 이 소설에서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파행적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변모는 유미리 문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원룸 아파트의 육면에 타일을 붙여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것 — 이것만이 성 불구를 이유로 이혼당한 남자가 '거세된 성'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다. 모자이크의 밑그림은 알렉산더 대왕과 다리우스 3세의 군대 간의 혈전을 그린 '이수스의 전투'. 이윽고 재현된 모자이크는 '남자'가 스스로 자른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와 작가 나츠미의 잘린 목에서 뿜어 나오는 피로 적셔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타일 조각(언어)으로 모자이크(이야기)를 완성해가는 '남자'는 '재일(在日)'라는 '거세된 삶의 조건' 하에서 문학의 길에 입신한 작가 유미리의 분신일 수밖에 없으며, 모자이크 '이수스의 전투'를 완성하고 죽은 작가 나츠미는 문학의 순교자이고자 하는 작가 유미리의 또 다른 분신인 셈이다. 작가가 스스로의 불우에 대한 정상적인 관계를 박탈당한, 또는 거부하는 인간 군상들이 보여주는 금간 삶은 파열된 자리에서 작가는 문학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

민족적 정체성 자각을 토대로 한 주제

유미리는 아쿠타가와 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나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재일 한국인문학(일반적 명칭은 재일교포 문학)에 대한 우리의 '순진한' 통념은 유미리가 한국 국적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독자 사인회가 우익(으로 여겨지는 집단)의 테러 위협으로 취소되었다는 보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의 문학을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저항과 투쟁의 주제를 추구해온 재일 한국인문학의 범주에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김달수·김석범·이회성·김학영·이양지와 같은 작가로 이어 오며 일본문단의 외각에서 독특한 위치를 고수해 온 재일 한국인문학의 성격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이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의 그들의 고뇌와 저항을 일본어로 표현한 문학'(가와무라 미나토)이라는 재일 한국인문학에 대한 종래의 정의에 따를 경우, 상당수의 작가가 이 범주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민족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재일'의 근거를 탐색하는 이회성과 김석범, 양석일 등은 재일 한국인문학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가장 합당한 작가이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문학가 중에는 극작가 츠카 고헤이나 평론가 다케다 세이지와 같이 아예 일본명으로 문필 활동을 하며 일본 문단의 본류에 합류한 작가군이 있는가 하면, 이양지나 이기승처럼 일본과 한국, 그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소외지대에서 유랑을 거듭하는 문학자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말하자면 유미리는 마지막 작가 그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미리의 글쓰기는 민족이나 언어 공동체는 물론이고 자신이 소속된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집단 또는 사회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스스로 이질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고통스런 자각에서 비롯된다. 유미리 소설의 '불화'의 주제는 그의 유랑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니와, 자기/중심으로부터 멀찌감치 벗어나 타자/변방의 위치에서 존재의 근거를 모색하는 이방인의 감성이야말로 그의 '타자의 문학'의 근간을 이룬다.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삶의 심연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 문단에서 재일 한국인문학은 소거된 타자이거나 잊혀진 타자였다. 재일 한국인문학은 재일 한국인들의 불우한 역사성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뇌와 저항의 메시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문학계가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줄곧 매달려 왔던 '자기'의 문제에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찾게 되었을 때 유미리로 대표되는 재일 한국인문학은 어느덧 제도화된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껄끄럽지만 신선한 존재감을 지닌 '타자'로서 새롭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이 정립된 양자 관계는 한국문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재일 한국인문학에 대해 막연히 지녀왔던 우리의 통념은 이제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관되게 '민족'과 '재일'이라는 화두에 매달리고 있는 양석일 등 몇몇 재일 작가들이 그리는 '조국'과 '민족'의 자화상에는 놀랍게도 반세기 전 분단 상황의 갈등이 거의 화석과 같이 고착된 채로 남아 있거나 심지어 일제가 강요했던 한국민족의 부정적 국민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상속이 상존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문학계나 재일 한국인 작가들 모두가 서로에 대해 군살박힌 타자 인식을 주고받아 온 셈이다. 그리고 오늘날 '민족'이 있던 자리에 '문학'을 배치하고 '혼혈'의 감성과 '타자'의 시선으로 삶의 심연을 이야기하는 유미리가 등장했다. 그의 등장이 갖는 또하나의 의미는 재일 한국인 문학에 대한 우리의 군살박힌 통념의 허구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